



|   |  |                |  |   |
|---|--|----------------|--|---|
| <br><b>인천광역시</b> |  | <b>보 도 자 료</b> |  |  |
|   |  | 배포일자           | 2022년 9월 1일(월)<br>총 3매   |   |
| 담당<br>부서  | 해양항만과  | 담당자            | •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440-4821<br>• 담당자 전한중 ☎440-4822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9월 해양유물은 ‘염전 무자위(수차)’

- 염전서 바닷물 끌어들이는데 사용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4년 개관 ... 유물기증을 위한 시민참여 독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의 해양유물로 선정된 ‘염전 무자위(수차)’를 소개했다.

무자위는 천일제염을 하던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데 사용했던 물건으로, 지역에 따라 ‘무자새’ · ‘자새’ · ‘물자새’ · ‘수리차’ · ‘수차’ 등으로 불린다.

무자위는 수차(水車)의 우리말로 물을 자아올린다는 의미로 담고 있다.

가운데 축에 나선형으로 발판을 붙인 무자위의 형태는 물레방아 바퀴를 닮았으며 한쪽에 수구(水口)를 달아 펴 올린 물이 흘러나가도록 만들어졌다.

물레방아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무게로 위에서 아래로 돌며 방아를

쥘는다면, 무자위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돌며 물에 잠긴 날개가 물을 퍼 담아 올린다.

무자위의 아랫부분을 물에 잠기게 설치하고 사람이 올라서서 날개를 밟으면, 바퀴가 돌며 물을 밀어 올리게 된다. 하지만 사용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져 양수기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보기 어려워졌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될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어민,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과 관련한 문의는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담당자 ☎044-200-5232)를 통해 할 수 있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를 통해 소중한 해양문화재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기증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해양역사를 후대에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9월의 해양유물 ‘염전 무자위(수차)’ 사진

**붙임**

**9월의 해양유물 「염전 무자위(수차)」**



**현대 | 140×108.2×47cm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